

『사상계』와 아카데미즘, 그리고 ‘학술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형성 방식
- 1953~1960년까지를 중심으로

김미란*

1. 『사상계』 혹은 아카데미즘에 대한 강한 지향
2. 『사상계』의 필진과 근대 지(知)의 창출 방식
3. ‘학습의 시대’와 『사상계』의 저자/독자 교육
4. ‘학술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형성과 분화

국문요약

이 글은 식민지 조선이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가로 정초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근대국가와 근대학문의 관계, 제도 아카데미즘과 『사상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사상계』가 사상 정립이라는 목표 수행을 위해 인문학을 주요 학문으로 호출하였으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회과학으로 초점을 이동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학술적 글쓰기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아카데미즘의 정련화를 그 하위 과제로 삼게 되었음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사상계』가 이처럼 학술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신생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국면에서 비롯된다. 국가 건설기의 지식인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들은 식민지 시기와는 전혀 다른 사회·정치적 조건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런 만큼 지식과 사상의 기반 또한 갱신되어야 했고 그 원천과 목록은 처음부터 다시 탐사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술 공동체와 학술 생산 시스템이 구축·가동되기까지 이 역할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매체가 『사상계』이다. 즉 이 시기에는 제도 아카데미즘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와 대중매체인 『사상계』의 학술적 성격이 거의 구별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당대에 학문이 아카데미즘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라 아카데미즘과 근대 매체가 함께 다루는 공동 영역으로 상상되고 인식되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그렇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지식을 분류하여 특정 분야의 학문을 학적 거점으로 삼으면서 학문의 위계화를 도모하는 것은 『사상계』가 독점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문을 배치하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 사회과학 중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이 『사상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이 학문들이 지적 구심점에 놓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현실을 해명하고 그에 개입할 수 있는 지적 무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상계』에서 아카데미즘의 형식과 내용을 담은 풍부한 논문 샘플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한 점이 주목된다. 그리고 『사상계』 초기에 이 학자 훈련은 곧 독자 훈련에 다름 아니었다. 학술지의 성격이 가장 강했던 1954년도까지 『사상계』의 독자는 학자가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상계』는 1955년도에 들어와 대학생과 30대 지성인으로 중심 독자를 변경한다. 이것은 독자의 폭을 확장해서 지를 대중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상계』에서는 학술적 글쓰기의 형식을 익혀야 쓸 수 있는 논문을 대학생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좋은 논문이라고 판단된 경우 대학생의 글이라도 과감히 지면을 할애해 줌으로써 학술적 글쓰기를 대학생이 써야 할 글로 지정하고,

장려하였다. 하지만 『사상계』가 독자의 폭을 넓히면서 점차 학술지의 성격보다는 대중적인 교양지와 시사정론지의 성격이 강화되며, 이는 독자 대중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상관이 있다.

(주제어 : 『사상계』, 아카데미즘, 학술지, 인문학, 사회과학, 학문의 위계화, 교양, 저자, 독자)

1. 『사상계』 혹은 아카데미즘에 대한 강한 지향

전광용의 『신소설 연구』는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한국 근대소설을 선택해 고찰한 최초의 박사학위논문이다. 『사상계』에서는 이 논문을 1955년 10월호부터 1956년 11월호까지 (거의 매호에) 연재 형식으로 전재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보인다. 이를테면 오늘날에도 학위논문을 종합교양지에 실는 관행은 없지만 1950년대에도 이것은 흔치 않았던 일이다.¹⁾ 그런데다가 김사엽의 박사논문인 『이조시대의 가요연구』(1956)에 대해 국문학자 정병욱이 학술적인 비판을 가한 논문 비평글 역시 『사상계』에 수록된다. 이는 사상계의 기획이 아니라 자신의 글을 실을 매체로 저자가 직접 『사상계』를 선택한 적극적 행위로 보인다.²⁾ 그런데 그의 학술

1) 물론 잡지에 소논문이나 학위논문의 일부 혹은 초록을 실는 것은 일제 강점기에만 들어진 관례이기도 하다. 한 연구자에 따르면 이미 30년대부터 『청색지』, 『박문』, 『여성』, 『문장』, 『인문평론』 등의 잡지에는 논문 형식의 글이 수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수의 개인적 학회 활동이 공적 미디어에 의해 공공의 지적 자산으로 공표되는 방식이 이 시기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최기숙, 『1950년대 대학생의 인문적 소양과 교양 ‘지’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42, 2010, 148쪽 참조).

2) 정병욱, 『아카데미즘의 위기(상): 박사논문 『이조시대의 가요연구』 비판』, 『사상계』 50, 1957. 9. 정병욱은 이 글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한다. “아카데미즘이란 일반 사회의 현실적 행동이나, 시사적인 어떠한 관심에도 지배되지 않는 순수한 원리에 의하여 영위되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태도를 이룸”인바 “수 삼년 사이 이

적 선택 행위는 국어국문학회의 기관지인 『국어국문학』이 6년째 발간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술적인 글들이 유통되었음을 말해주는 사례에 해당할 터인데, 당대의 아카데미즘이 처한 특수한 국면과 『사상계』와 아카데미즘이 맺은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고찰 없이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학적 전문성이 가장 높은 학위논문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모두 학술대회나 학회지 같이 아카데미즘의 제도화 과정에서 정착된 방식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관례이다. 즉 대학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수학하고 규정에 따라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가 학위를 얻기 위해 쓰는 논문인 학위논문을 공개하거나 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인 학술대회나 학회의 기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에는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이 제도화되기 시작했던 1950년대에 『사상계』에 이와 같은 글이 ‘자연스럽게’ 실릴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글에서는 (『사상계』 편집진을 포함한) 당대의 지식인들에게서 “언론의 창달과 학계 육성이라는 두 가지 지향”³⁾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사상계』가 근대 국가 수립기에 아카데미즘과 맺은 관계를 집

나라 아카데미에 대두되는 몇가지 현상은 심히 우려할 만하다.” 그리고 글을 쓴 목적으로 “이 논문(김사엽의 박사논문인 『이조시대의 가요연구』를 가리킴-인용자)을 검토함으로써 이론적이고 합리적이어서 할 우리의 방법과 태도가 건전한 아카데미즘으로 지양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위의 글, 319-321쪽). 이 진술들은 아카데미의 영역 안에서 소통되어야 하는 글쓰기가 『사상계』 안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즉 당대에 『사상계』는 아카데미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3) 한우근, 『역사학계에 기여한 장준하 선생』,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민족혼·민주혼·자유혼: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나남출판, 1995, 105쪽.

중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특히 이는 근대국가와 근대학문의 관계, 제도 아카데미즘과 『사상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상계』가 학문적 실천 방식, 학문의 방향, 학문적 태도 등을 규정하는 데 관여하면서 제도 아카데미즘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상계』의 독자를 중심으로 학술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만들어낸 측면을 살피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사상계』의 초기 ‘근대 지(知)의 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범주들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지(同志)는 서구에서 개발된 범주들을 소개,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제도, 이데올로기, 사회 체제, 서구의 핵심 가치(사상 등) 등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근대국가에 필요한 지식을 축적해 나갔던 것이다. 또한 국가 구성원 개개인의 근대적 제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인문학과 사회과학 중 특정 학문들을 호출하면서 그 내용을 확정하고,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파급력 있는 학술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아카데미즘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창출된 지를 매개로 정치적 프로젝트를 구현해 나간 것이다. 말하자면 『사상계』가 집중한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정치적 의제는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구체화되었던 셈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상계』는 특정한 학(學)과 지에 대한 인식 방식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근대적 지의 범위 확정과 근대 지 축적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한 지식인 대중의 인식을 획득해내는 데 성공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시기 출판물에 부여된 학술적 역할을 『사상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해 나갔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학술적인 것에 대한 지식인 대중의 인식을 획득해 내었는가를 『사상계』 필진(저자)과 지식인 대중(독자)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

다. 요컨대 이 글에서는 1959년부터 1960년 사이에 아카데미즘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 『사상계』의 문화정치를 지식사적 관점에서 탐색하여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사상계』의 필진과 근대 지(知)의 창출 방식

『사상계』 1969년 12월호에는 200호 간행을 기념하는 『지령 200호 기념호 합본부록: 사상계 통권 제1호~제199호 총목록』이 실린다. 이 합본부록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상계』 편집진들이 지금까지 실은 글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학자들이 쓴 대부분의 글을 ‘논문’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⁴⁾ 논문은 식민지 시기 근대 대학제도가 확립되면서 전공별로 학회와 기관지가 만들어짐에 따라 각 기관지에 게재되기 시작했지만, 일반 교양지에 실리는 것도 관행으로 존재했다. 그리고 논문이 학회지 뿐만 아니라 일반 교양지에도 실리는 관행은 학술지와 교양지의 경계가 모호했던 1960년대까지는 유지된 듯하다.⁵⁾ 이처럼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이라는 글쓰기 형식이 요즘과 달리 교양지나 문예지 등에서도 일정한 섹션을 구성할 정도로 대중적인 소통성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은⁶⁾ 당

4) 200호 기념호(1969, 12)에 실린 총목록에는 『사상계』에 실린 모든 글들이 권두언, 논문, 평론, 희곡, 시, 소설, 서평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중 전체 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논문이다. 참고로, 『사상계』는 1954년까지 장르를 구분하거나 별도의 코너를 두는 일 없이 모든 글들을 배열했기 때문에 목차에 권두언, 논문, 평론, 희곡, 시, 소설, 서평 같은 분류 방식이 드러나 있지 않다.

5) 논문이 일반 교양지에 실리는 관행은 사실 1980년대에도 발견된다. 하지만 여기서 1960년대로 시기를 한정하는 것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학술지와 교양지가 명료하게 분화되지 않았고 독자 대중 역시 이를 분리시켜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기의 특징을 구명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본문에서 밝히겠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그에 대한 인식이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대에 교양지나 문예지 자체가 제도 아카데미즘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일부 떠맡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1950년대에 대학이 급격하게 팽창함에 따라 지식의 제도화와 지식 집단의 조직화가 자극되었고,⁷⁾ 이 과정을 통해 대학은 지식집단의 권위를 보증하는 절대적 준거가 되었으며 지식집단은 지식의 내용을 조직하고 배치하는 주체가 되었다.⁸⁾ 하지만 아카데미즘이 제도화되는 과정의 초기에는 독자적, 자율적인 학술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데다 학술 생산 시스템도 거의 갖추어지지 못한 형편이었다. 예컨대 교재나 교구, 도서관 설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이 시기의 대학 수업은 강의 중심의 교수 방법이 위주가 되었으며 대학원 교육 역시 매우 부실하였다.⁹⁾ 또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확산하는 장인 학회지가 전후에 하나씩 창간되기 시작했지만, 연구의 수준이 높지 않은 데다 게재된 논문 수도 적었고 발간마저 매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해결하여야 할 당면 문제가 쌓여 있어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학계 육성이라는 『사상계』의 학술적 기획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1950년대에 논문이라는 글쓰기 형식이 대중적으로 소통될 수 있었던 것이나 『사상계』가 학술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신생 대한민국이 처한 특수한 국면에서 비롯된다. 국가 건설기의 지식인들은 식민지 시기와는 전혀 다른 사회·정치적 조건에 처하게 되었

6) 최기숙, 앞의 글 참조.

7) 김건우, 『한국문학의 제도적 자율성의 형성: 대학제도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49, 2010.3.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8) 서은주, 『1950년대 대학과 ‘교양’ 독자』, 『현대문학의 연구』40, 2010, 10쪽.

9) 문교40년사편집위원회 편,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77쪽.

으며 그런 만큼 지식과 사상의 기반 또한 갱신되어야 했고 그 원천과 목록은 처음부터 다시 탐사되어야 했던 것이다.¹⁰⁾ 그리고 학술 공동체와 학술 생산 시스템이 구축·가동되기까지 이 역할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매체가 『사상계』이다. 『사상계』가 학술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조선어 매체의 특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근대 매체들은 식민지라는 정치 환경으로 인해 국민국가의 일반적인 지식 근대화 정책 혹은 제도적 아카데미즘과 근본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제도적 아카데미즘과의 단절은 결과적으로 식민지의 조선어 매체들이 한국적 근대 지식의 창출 주체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 식민지 민간학의 특징은 주권국가의 관학 아카데미즘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대국가 운영 체계로서의 학문적 내용과 역할을 ‘상상’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데 있다.¹¹⁾ 『사상계』는 식민지 근대매체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계승하면서 근대국가 수립기인 1950년대에 국가 건설을 위한 학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기울인 거의 유일한 매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사상계』에서 벌인 작업 중 대표적인 것은 지식의 유통경로를 바꾸는 일이었다. 일본에서 직수입했던 지식은 미국, 서구로 그 수입처가 바뀌게 되며, 이를 통해 역사, 문학, 철학 등에 대한 식민지 지식의 해체와 재구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¹²⁾ 즉 지식과 사상의 기반을 갱신하고 지식의 원천과 목록을 재탐사하는 작업을 아직 학계가 담당하지 못하던 시절,

10) 권보드래,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아세아연구』54(2), 2011, 248쪽 참조.

11) 한기형, 『근대매체와 식민지 민간학술사회의 형성: 근대문학의 지식사적 위상에 대한 시론』, 『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09. 참고로 한기형은 ‘관학’과 ‘민간학’을 학술적으로 개념화한 가노 마사나오의 연구를 수용해서 논문에 활용하고 있다.

12) 식민지 지식 체계의 해체와 근대국가 ‘한국’을 창안하기 위한 지식의 재구성이 이루어진 방식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상세히 다루기 어렵다. 차후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사상계』는 새로운 지식·이론·사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외국**의 매체·언론을 적극적으로 탐사하면서 지속적인 번역 작업을 벌여나갔다.¹³⁾ 곧 『사상계』는 번역을 통해 공통의 지식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던 것이며 이는 특히 1950년대에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정치학자이자 동지 편집위원이었던 양호민은 이 시기를 “목말라 했지만 이론가가 없었던 시절”로 기억한다.¹⁴⁾ 달리 말하면 이것은 195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독자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논문이나 에세이·평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의미한다.¹⁵⁾ 이처럼 “한국

13) 권보드래, 앞의 글, 248쪽. 참고로 『사상계』와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당대에 이루어진 번역의 특징을 설명한 글로는 박지영의 『번역된 냉전, 그리고 혁명: 사르트르, 마르크스즘, 실존과 혁명』(사상계연구팀 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을 들 수 있다.

14) 『주간좌단: 사상계 시절을 말한다』,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앞의 책, 65쪽.

15) 김동춘에 따르면 한국의 구체적 정치·경제·사회는 1960년 4월혁명을 기점으로 비로소 인식의 대상, 더 나아가 실천의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4월혁명을 계기로 청년학생들이 획득한 주체의식은 자기 성찰적 인식으로 나아갔지만, “이들은 한국 정치·경제·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4월혁명에서 만들어진 주체의식은 우선 역사학과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고 그러한 토대위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비로소 사회과학이 등장할 수 있었다.”(김동춘, 『4·19혁명과 사회과학』, 『실천문학』97, 2010, 335쪽.)

참고로, 1950년대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과 방향 제시는 1960년대 초중반에 송건호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송건호, 『민족지성의 반성과 비판: 한국지성인론』, 『사상계』127, 1963.11과 송건호, 『지성의 사회참여』, 『청맥』3, 1964.11이 대표적이다. 송건호는 두 글에서 “한국의(-인용자) 『아카데미즘』은 지금 어떻게 통치하여(정치학) 어떻게 행정하며(행정학) 어떻게 경영하며(경영학) 어떻게 조종하여(사회학) 어떻게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사회심리학)에 온 정력을 쏟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모순을 적출하고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 “사회과학은 결코 사회와 유리되어서는 안되며 먼저 지금 이곳의 현실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과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한다.

이외에도 송건호는 H. 레더러가 쓴 『미국은 한국에서 실패했다: 『아글리 아메리칸』의 저자가 본 1960년의 한국실정』(『사상계』117, 1963.2)을 번역하여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미국 신화를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정치·경제·사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교과서”가 요청되었던 시기에 『사상계』는 ‘사상의 창출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아 특정한 지를 선택적으로 수입하고 배치해 나갔으며,¹⁶⁾ 구축된 지를 통해 국가와¹⁷⁾ 사

16) 지식의 수입 방식으로는 원서를 번역한 글을 게재하거나 사상계 필진들이 개별적으로 획득한 지식을 종합해서 쓴 글을 『사상계』에 실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원서의 번역은 학술적 글쓰기의 범례를 제공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17) 장준하는 ‘국가’와 ‘관’을 구분하여, 국가를 수호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는 동시에 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관을 행정기관 및 행정관료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면서, 「권두언」을 통해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였고 때로는 특집을 기획하여 전격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해 수호하고 완성해야 할 존재였다. 이 때문에 그는 문교부 산하기관인 국가사상지도원의 기관지로 기획된 『사상』의 편집을 기꺼이 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국민사상지도원은 대통령령으로 1951년 3월 27일에 설치되었으며, “국민사상의 도의계몽”을 목표로 하였다. 후지이 다케시에 따르면 이는 처음에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교육을 위해 구상되었으나 실제 활동은 유명무실했다. 그러다가 1952년에 들어와서 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 강연 및 사상총서와 『사상』지 간행 등을 하면서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이에 대해서는 후지이 다케시, 「반공과 냉전 사이: 『사상』과 『사상계』의 반공주의와 진영론」,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자: 냉전과 혁명, 그 사회역사적 분절과 이행의 논리들』, 2011. 4. 22. 참고.)

이와 관련해 장준하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때(1·4후퇴 이후-인용자)는 정부기관이 모두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 있을 때로 그때 문교부 관하에 〈국민사상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새로 설치되어 그곳의 기간지 형식으로 발간된 것이 『사상』이었는데 그 편집을 내가 맡았다. 그리고 “〈국민사상연구원〉이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이며 『사상』이 그 기관지로 발간되면서도 편집만을 연구원이 담당했을 뿐 그 발행은 민간인에 의해서 했”는데 그 이유는 “순전한 정부기관지라면 재정법상 국가전매품 이외에는 유상으로 판매할 수가 없는 것이니만큼 무상으로 배포해야 할 것인데 정부에 그럴만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이유로는 자칫 일반 독자에게 관제사상지도라는 인상을 줄 우려도 있었기 때문이다”(장준하, 「브니엘」, 『장준하전집3: 민족주의자의 길』, 세계사, 1992, 245쪽). 여기서 잘 드러나듯이 1950년대에 장준하는 국가기구의 활동을 중시하면서도 ‘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품고 있었다. 이것은 1963년에 “도대체 민주국가에는 정부의 기관지가 필요없는 것이다”라고 쓴 것과는 상반되는 관점이다(장준하, 「한 시민이 읽은 30년 간의 신문」, 『

회,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동지(同志)가 사상의 정립을 위해 인문학을 주요 학문으로 호출하였으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회과학으로 초점을 이동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목표 수립을 위해 학술적 글쓰기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아카데미즘의 정련화를 그 하위 과제로 삼게 되었다고 간주한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상계』의 전신인 『사상』에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아카데미즘의 특정 분야를 호명하는 방식이 『사상』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령 『사상』 창간호의 편집후기를 통해 장준하는 “인간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이며, “사고의 명확성을 잃어버린 개인이나 집단에서 바른 판단과 바른 행위와 바른 생활을 바랄 수는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그리고 “민족과 인류의 역사가 가장 험난한 고비를 넘는 오늘날 우리 앞에는 과거와는 전혀 그 각도를 달리하는 고민과 과제가 놓여 있다”고 현실을 진단하면서 “이 고민과 과제를 해결하고 이 겨레의 활로를 개척함에는 선인들의 체험과 아울러 새롭고 또 넓고 깊은 세계적인 사고가 요청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사상』은 실로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느껴 나서게 되는 바이므로 그 편집에 있어서도 특히 연구적이며 이념적인 것에 치중”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¹⁸⁾ 본고에서는 이중 “특히 연구적이며 이념적인 것에 치중”하였다는 진술에 주목한다.¹⁹⁾

장준하전집3: 민족주의자의 길, 339쪽. 이러한 인식상의 변화는 본고에서 밝히고자 하는 『사상계』의 학적 선택 대상의 변화와도 상관이 있다.

18) 『사상 창간호 편집을 마치면서』, 『사상』1(1), 1952 창간호, 132쪽.

19) 『사상계』에서도 이러한 생각은 이어진다. 그리고 『사상계』 창간호가 『사상』 5호를 준비하던 중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잡지명을 바꾸어 발간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간의 연관성은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하여 장준하는 자신이 지도원에 재직시 『사상』의 5호를 위해 원고를 준비하였으나 더 이상 『사상』을 발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필요한 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사상』은 “연구적이며 이념적인 것에 치중”하고자 했으며, 〈부록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를 위해 인문학자들이 주요 필진으로 선택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전공과 글에서 확인되듯이, (신학과 윤리학을 포함한) 철학과 사학이 사상 정립에 적합한 학문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사상』은 인문학에 정초되어 있었으나, 아직 학문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문학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시기상조였다. 가령 철학은 당대의 제도 아카데미즘에서 학문적 토개가 가장 취약한 학문에 속했다. 단적으로 한국철학회의 기관지인 『철학』은 1955년도에 와서야 창간호를 발간할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역량이 없어서 4집은 1970년에 와서야 발행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그 내용은 해설이나 소개 위주였으며 이것은 철학이 사상의 정립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능력을 1950~1960년대 내내 갖고 있지 못했음을 말해준다.²⁰⁾ 『사상』에 실린 글

하자 자신이 아는 학자들에게 부탁하여 몇 편의 원고를 새로 받아 나오게 된 것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장준하, 『브니엘』, 앞의 책, 249쪽). 그렇기 때문에 장준하는 『사상계』 창간호 편집후기에서 “『사상』속간을 위해서 편집하였던 것을 『사상계』라는 이름으로 내놓게 된다. 동서고금의 사상을 밝히고 바른 세계관 인생관 수립하려는 기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라고 밝히게 되는 것이다(위의 글, 249쪽). 이뿐만 아니라 장준하는 『사상계』의 편집후기에서 “세계와 인간에 대한 바른 견해는 생활의 바른 표준이 되”며(『편집후기』, 『사상계』1, 1953 창간호), 이를 위해 “겨레의 생각을 모아 학적 체계를 세우고, 이에 설 수 있는 사상을 건축하여 완성하여 보려고 애쓰고 있다(『편집후기』, 『사상계』7, 1953.10·11)고 적는 등 제도 아카데미즘에서 담당할 역할을 자기화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 20) 1955년도의 창간호를 중심으로 『철학』에 실린 논문들을 살펴보면, 『헤겔의 청년시대: 철학적 사색의 태동기』(김계숙), 『人心道心の 원시해석』(이상은 『고대신문』 9월 9일호에 일부를 발표하였으나 이를 완결하여 게재한다는 내용이 글 말미에 덧붙여 있음.), 『자유의 근거』(손명현), 『칸트와 바울: 칸트 철학의 통로』(김기석), 『휴먼의 죄악성』(김석목), 『정치력사관의 제창』(김용배), 『고전논리학과 현대논리학』(김준연), 『易傳과 중용』(錢穆 대만대학교수), 김경구 역 천목의 『중국사상사』 1장을 번역한 것임 등 번역글 1편을 포함해 총 6편의 논문이 실렸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주석

역시도 제도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다. <부록 1>(과 <부록2>)에서 잘 확인되듯이 여기서 철학은 독립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시민의 주체성을 고양하기 위해 윤리적 태도를 자극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 시기의 사학 역시도 근대 국가의 정립에 필요한 학적 거점을 제공해 줄 만한 상황에 놓여 있지 못했다. 가령 1950년대에는 『진단학보』나 『역사학보』에 한국근대사 연구 논문이 단 한 편도 실리지 않았다. 연구는 중고대사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것은 사학이 당대 현실을 해석하고 그에 개입할 수 있는 학적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²¹⁾ 따라서 사상 정립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즘의 재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점에서 『사상』의 역할은 당대의 학문적 수준을 진

을 단 글이 3편이고, 나머지 글은 주석, 참고문헌 같은 논문의 기본 체제는 지키지 않았으며, 문체와 서술방식은 논문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철학이 당대에 통용된 논문의 기준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일 에 해당한다. 내용 역시 동서양철학의 해설 위주여서 이 시기 철학 연구의 수준이 매우 낮았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참고로 그로부터 2년 뒤에 발간된 제2집에는 단 세 편의 논문만 실려 있다. 이것은 1950~60년대에 철학이 아카데미즘에서 차지한 역할 이 미미한 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영미철학의 경우 그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한국철학계 에서 태동한 것은 1950년대에 와서였고 그것도 주로 영국 경험론이 제외된 실용주의와 분석철학, 두 사조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개괄적 소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황필홍·이병수, 「50년대까지 영미철학의 수용과 용어의 번역」, 『시대와철학』 14(2), 2003, 162쪽).

- 21) A. J. 그라즈단제브가 쓴 한국근대사를 이기백이 서평 형식으로 소개한 것이 이 시기에 유일하게 한국근대사를 다룬 사례에 해당한다(A. J. 그라즈단제브, 이기백 옮김, 『현대한국, 일본 지배 하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연구』, 『역사학보』8, 1955.9). 당시에는 조선 후기 연구도 드물어서 한우근이 쓴 「성호 이익 연구: 그의 경제사상」(『진단학보』20, 1959)과 「성호 이익연구의 일단」(『역사학보』7, 1954.12) 등 몇 편 찾기 어렵다.

단하고 아카데미즘의 재건이 긴급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있었고, 그 구체적인 재건 방식은 『사상계』에서 본격적으로 모색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사상』이 학술지로서의 외양을 철저히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사상』의 학술적 특징을 살펴보자면, 논문 형식의 글이 주로 실렸다는 점과²²⁾ 아직은 번역 논문이 거의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²³⁾ 즉 『사상』은 인문학 중 철학과 사학을 전공하는 국내 학자들의 글을 신되, 논문 형식의 글을 중점적으로 게재하는 방식의 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논문 형식의 글이라고 해서 주석을 달고 참고문헌을 모두 명시한 본격적인 논문이 등장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글은 주제와 서술 방식, 문체를 통해 논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였을 뿐, 논문의 형식적 특성을 거의 살리지 않았으며 설사 형식적 특성을 살렸더라도 중요한 논문 형식 중 일부만 채택하였다. 가령 『사상』 제1호에 실린 김재준의 「종교와 철학」에는 참고문헌만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배성룡의 「한민족의 경제사상」이나 김석목의 「주체성과 전환기의 윤리사상」에는 몇 개의 주석이 달려 있을 따름이다. 그렇지만 『사상』 제3호에 실린 배성룡의 「동양적 정치사상과 그 양식연구」나 엄요섭의 「사회학적으로 본 유물사관」에는 상세한 목차가 제시되어 있

22) 당대의 논문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사상』에 실린 글들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대체로 논문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게재된 학자의 글을 편집자주나 편집후기에서 대개 논문으로 지칭한 것도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 참고가 되었다.

23) 번역 논문이 거의 없는 것은 번역할 대상을 이제 막 확보했기 때문일 공산이 크다. 『사상』의 마지막 호인 제4호의 신간소개란에서 장준하는 “상기 제서책은 현재 부산 미국공보원에 비치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주한 미공보원은 그 즈음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원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이에 대한 연구로는 허은,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USIS)’의 역할과 문화전파 지향」, 『한국사학보』15, 2003이 있다). 참고로 주한 미공보원은 『사상계』와 『역사학보』 등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용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카데미즘의 재건에 관여한 바 있다.

고, 인용의 출처를 제시하는 (완전주에 가까운) 주석이 제공되어 있으며,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의 구성이 채택되어 있다. 즉 당시로서는 드물게 형식적 완결성을 모두 갖춘 논문이 『사상』에 실렸던 것이다. 하지만 정대위의 「기술·도덕·신앙: 아아놀드·토인비의 사론과 그 동시대적인 Context」 같이 문체는 평론에 어울리지만, 주석이 달려 있고 내용도 학술적 성격이 강한 글, 즉 논문과 평론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어 장르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도 눈에 뜨인다. 그러나 당시의 논문 쓰기 관행을 염두에 두었을 때 형식의 완결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상』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논문이었다.

당시에 간행되기 시작한 역사학회의 기관지 『역사학보』와 『사상』의 학술적 글쓰기 방식을 비교해 보면 그 점이 더욱 명확해진다. 1952년~1953년에 간행된 『역사학보』 제1, 2호에는 주로 소제목이나 목차, 주석이 없는 논문들이 실려 있다. 이처럼 당시의 학술적 글쓰기 관행을 참조할 때 『사상』이 전형적인 논문 형식의 글을 실은 학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학술적 글쓰기의 형식은 『역사학보』 제4호에 이르러서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는바, 이는 동지의 모든 글에 주석이 철저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 확인된다. 그렇지만 『사상』의 후속으로 간행된 『사상계』에서는 비슷한 시기인 1953년 8월에 주석뿐만 아니라 참고문헌까지 구비한 논문들이 눈에 띄게 등장한다.²⁴⁾ 참고문헌

24) 1953년 8월은 본격적으로 논문 체재를 갖춘 글이 『사상계』에 급증하는 시기이다. 1953년도 5월호에 배성룡의 「동양정치사상급양식의 연구」(1953.5)가 목차는 있으나 주석은 달리지 않은 형태로 실린 뒤로, 1953년도 7월호에는 완전주가 착실하게 달린 양호민의 「쑨베트·민주주의론」((1953.7)이 게재된다(참고로, 양호민은 이 글로 젊은 나이에 이론가로서 위상을 정립하게 되는바, 한편으로 이것은 『사상계』가 이론가를 배출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1953년 8월호부터는 목차, 약주나 완전주, 참고문헌 등을 밝힌 글들이 부쩍 늘어났다.

을 다는 것이 아직 학계의 관행이 되지 못했을 때 『사상계』에 그러한 논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당대에 동지가 학술적 글쓰기의 관행을 만들어내는 중심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학술적 관행은 단기간에 정착되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상계』가 당대의 대표적인 학술지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학술잡지로서 “사상계”가 계속 되어 나오고 새로이 “학총”이 나와 지성인을 위하여 반가운 일”²⁵⁾이라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1950년대에 『사상계』는 1955년 2월에 학계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월간학술지 『학총(學叢)』²⁶⁾과 동일하게 학술지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빨리 정간되었고 내용도 충실하지 못했던 『학총』은 『사상계』와 동등한 권위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²⁷⁾ 그렇지만 『사상계』 필진들이 대체로 학자라는 점에서 이것은 학계와 근대 매체가 여전히 학술적인 것을 공동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제도 아카데미즘에서 간행되는 학술지와 대중매체인 『사상계』의 학술적 성격이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이 시기에 학문은 아카데미즘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라 아카데미즘과 근대 매체가 함께 다루는 공동 영역으로 상상되고 인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술적 의제의 창출 면에서 본다면 『사상계』의 기획은 그야

25) 「잡지문화의 실태」, 『동아일보』, 1955.4.22, 4면.

26) 「종합학술월간 「학총」지를 창간」, 『경향신문』, 1955.2.15, 2면 참조.

27) 당시에 『학총』이나 『역사학보』 같은 학술지는 시중에 판매되었으며 『사상』이나 『사상계』에서도 여러 학술지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를 자주 실었다. 이것은 학술지가 당대에는 전공자뿐만 아닌 지식인 일반을 독자로 상정했음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계의 독자후기에는 “『학총』 등 몇 종의 교양지를 구매했으나 이내 정간되어 버려” “한국문화계를 비판하고 하염없는 불만을 품던 중” 『사상계』를 읽고 나서 “귀지 열독자의 일원이 되”었다(『독자통신』, 『사상계』30, 1956.1)는 글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다.

말로 독보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역사학계에서 아직 근대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시기에 동지는 1954년 11월부터 1955년 1월까지 갑오경장의 재해석을 위한 4편의 기획 논문을 신는다.²⁸⁾ 이중 국사학자이자 언론인인 천관우가 쓴 글이 주목되는 것은 그가 글의 서두에서 “갑오년(고종 31년, 서기 1894년)을 근대의 기점으로 삼는 일시안을 내놓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²⁹⁾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도 역시 갑오경장을 “봉건제도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등 『사상계』는 이 연구자들을 통해 근대 기점론에 대한 논쟁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³⁰⁾ 그리고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 국문학 연구자들이 이를 수용한 논의를 펼치기 시작하는바, 이것은 동지를 통해 학문적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국문학 연구 영역이 확장되는 중요한 장면에 해당

28) 〈갑오경장의 사상적 연구논문〉이라는 공동 제목하에 이병도의 『제1논문: 동학란의 역사적 의의: 그 1회갑을 당하여』(『사상계』16, 1954.11), 백세명의 『제2논문: 갑오경장과 천도교사상』(『사상계』16, 1954.11), 천관우의 『제3논문: 갑오경장과 근대화』(『사상계』17, 1954.12)가 실린다. 홍이섭의 『갑오경장과 기독교』(『사상계』18, 1955.1)에는 제4논문이라는 표식이 달리지 않았지만 유사한 시기에 나온 같은 계열의 논문이므로 여기서 함께 다루었다.

29) 이병도의 『제1논문: 동학란의 역사적 의의: 그 1회갑을 당하여』, 10쪽.

30) 참고로, 『사상계』에서는 1963년 2월에 주체적인 한국사관 정립을 정하기 위해 특집을 기획해서 『심포지움: 한국사를 보는 눈-한국사관은 가능한가?』와 『일제관학자들의 한국사관』(김용섭)을 본지에 실은 바 있다. 그리고 심포지움에 참여한 천관우, 한우근, 홍이섭, 최문환, 조지훈은 “한국사학에 있어서 『아카데미즘』의 재검토”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문헌 실증주의에 정향되어 있던 당대의 연구 풍토를 전격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경제사의 연구가 새로이 요청되는” 현실에 따라 백남운과 같은 사회경제사학자들을 새로 조명하는 등 주체적인 사학 연구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다양하게 펼쳤다. 김용섭 역시 『일제관학자들의 한국사관』을 통해 한국의 학계와 일반 사회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주체적인 사학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계』의 기획은 내재적 발전론이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당대의 논의를 수렴하고 확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카데미즘이 나아갈 방향을 선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다.³¹⁾ 가령 박지홍과 김지홍이 국문학사의 시대 구분을 위해 갑오경장을 근대의 기점으로 삼고 있으며,³²⁾ 박영희는 『현대한국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해 갑오경장 기점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³³⁾ 이 외에도 정부가 한글간소화안을 발표하자 정경해, 이승녕, 허웅이 학술 논쟁을 벌이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사안에 학술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창출하거나 기획논문이나 특집논문을 마련함으로써 당대의 현안을 학술적 논의의 장 안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등 『사상계』는 학문을 매개한 현실 개입 방식을 몇 가지 창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적 의제의 창출은 당시의 학술지가 담당하지 못한 『사상계』만의 역할에 해당하느냐, 무엇보다도 1950년대에 학술지는 이를 기획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³⁴⁾

한편으로 지식을 분류하여 특정 분야의 학문을 학적 거점으로 삼으면서 학문의 위계화를 도모하는 것 역시 『사상계』가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상계』가 지적 변신을 매우 빠르게 이루어 나가면서 필

31) 그러나 학문적 파급력이 『창작과비평』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사상계』를 통한 학문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창작과비평』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생산된 지식을 상호 교류시키고 결합시킨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연구한 흥미로운 논문으로는 김현주, 『『창작과비평』의 근대 사담론: 후발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사회과학』, 『상허학보』36, 2012. 10이 있다.

32) 박지홍·김지홍, 「공개 토론 기록: 국문학사 시대 구분 문제」, 『국어국문학』 20, 1959.2.

33) 박영희, 「현대한국문학사」, 『사상계』58, 1958. 5.

34) 가장 지속적으로 학회지를 발간한 국어국문학회나 진단학회, 역사학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이 시기에는 단 한 차례의 특집도 기획하지 못했다. 단, 『국어국문학』에 실린 박지홍·김지홍, 「공개 토론 기록 I: 국문학사 시대 구분 문제」(『국어국문학』 20, 1959.2)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보이는데, 이 논문의 주제가 국어국문학회의 자체 기획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의 학회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이 논문들에서 국문학사의 시대 구분을 할 때 갑오경장을 근대의 기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본문에서 밝혔듯이 갑오경장 기점론을 촉발시킨 『사상계』의 학술 기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진을 급속하게 바꾼 데서 잘 확인된다. 장준하는 『사상』과 초기의 『사상계』를 간행할 당시, 사회적, 정치적 분열이 사상의 분열에서 초래된다고 판단하여 사상을 통한 내부의 통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³⁵⁾ 하지만 그는 사상의 모색만으로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학적 도구를 획득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사상계』 필자는 계속 충원되었으며³⁶⁾ 이 과정에서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으로 학적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였던 것이다.

1953년부터 1960년까지 『사상계』에 글을 쓴 주요 필자로는 신상초(1953.5. 정치학), 변시민(1953.6. 사회학), 양호민(1953.7. 정치학), 민석홍(1953.7. 서양사), 장경학(1953.8. 법학), 주석균(1953.8. 경제학), 홍이섭(1954.1. 한국사), 정병욱(1954.8. 국문학), 안병욱(1954.8. 철학), 한우근(1955.3. 한국사), 김준엽(1955.5 동양사), 고병익(1957.2 동양사), 이만갑(1958.5. 사회학) 등을 들 수 있다.³⁷⁾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동지의

35) 그가 이처럼 분열과 통합 담론에 이끌린 것은 『사상』의 한 좌담회에서 잘 확인된다. 그는 이 좌담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민족적 분열을 재래케 된 사상 대립”의 여러 가지 원인을 탐색하고 “전후구미 각국의 사상운동과 그 경향”을 살피면서 새로운 지도 이념과 새로운 사상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쪽으로 토론을 유도하였다(『좌담회: 사상운동의 회고와 전망』, 『사상』1(2), 1952.10).

36) 『사상』과 초기 『사상계』의 필자 선정은 국민사상연구원의 설립안을 구상하고 그 기관지인 『사상』의 편집을 장준하에게 맡겼던 백낙준(당시 문교부장관)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점차 학회와 관련을 맺으면서 다양한 학자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준하는 『사상계』의 지향에 맞는 필자들을 직접 선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교육문화협회의 기관지인 『교육문화』, 소장 역사학자들이 주축이 된 역사학회의 기관지 『역사학보』,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기관지인 『동방학지』, 진단학회의 기관지인 『진단학보』, 국어국문학회의 기관지인 『국어국문학』, 한국철학회의 기관지인 『철학』, 영어영문학회의 기관지인 『영어영문학』 등의 학술지를 사상계사에서 발행하면서 그는 “각계의 지도층인사 및 노소장학자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장준하, 『브니엘』, 앞의 책 참조).

37) 이 시기에 『사상계』에 5편 이상 글을 게재한 학자들을 주요 필자로 보고 정리한 것이다. 괄호 안의 연도는 처음으로 필자들이 『사상계』에 글을 쓴 시기에 해당한다. 참

필자가 되었으며, 이것은 『사상계』가 다루는 학적 범위가 당대에 가장 넓었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사상』을 포함한) 『사상계』는 철학, 역사, 법학, 사회학, 문학 등에서 출발해 정치학(1953.6.) 지리학, 과학(1953.7.), 경제학(1953.8), 심리학(1953.8), 국어학(1953.8), 비교문학(1955.9.), 영어학(1956.1.), 경제지리학(1956.7.), 유전학(1956.7.), 비교행정학(1956.9), 천문학(1957.5.), 생물학(1957.6.), 의학(1957.10.) 등으로 학적 대상을 확장해 인문, 사회, 과학 전반을 망라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세부 전공에 해당하는 농업경제(1954.10), 교육심리학(1953.8) 등을 다루는 등 제도 아카데미즘에서 학적 범주가 세분화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학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를 분류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동반하게 된다. 『사상계』는 제도 아카데미즘이 교양과 전공을 분화시키는 방식을 참조하면서 이 작업을 수행해 나갔지만, 독자적으로 지를 분류하고 위계화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가령 1950년대에 각 대학에서 교양교과를 확정하게 되면서 문학과 고전이 교양 파트에 속하게 되지만,³⁸⁾ 『사상계』는 더 나아가 “신생 근대 학문인 국문학”³⁹⁾을 문학으로 분류하여 창작물과 같은 계열에 놓는다.⁴⁰⁾ 뿐만 아니

고로 이 필자들 중에서 『사상계』에 가장 많은 글을 쓴 학자는 신상초, 장경학, 김성식이다.

38) 예컨대 1948년 국립서울대학교에 도입된 교양교과는 1. 국어 및 국문학 2. 외국어 및 외국문학 3. 자연과학개론 4. 문화사 5. 체육이라는 5개의 교양 필수 영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교양은 특정 학문의 경계를 벗어난 초학문적 범주이자, 전문지식과는 구별되는 보편적 지식과 소양으로 소통되었다. 여기서 구심점을 차지한 것은 인문학적 지식이다. 또한 20세기 전반에 미국대학의 교양교육을 형성하는 두 개의 커리큘럼은 ‘서구문명의 역사’와 ‘고전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1960년대 말까지 미국대학에서 지속되었던 대표적인 교양교육모델이다. 이러한 서구 중심의 문명·문화사와 ‘고전’에 대한 지식이 한국의 경우에도 교양지의 요체가 된다(서은주, 앞의 글, 15쪽, 40쪽).

라 어학, 과학, 의학 등은 처음부터 교양의 영역에 배치하였다. 철학과 역사는 초기에 매체의 중심에 놓였으나 사회과학이 우세를 점하게 됨에 따라 점차 교양의 영역으로 밀려난다. 특히 철학의 경우 그 위상이 교양의 수준으로 하락되었다는 점은 특정 학문의 지성사적 위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사회과학 중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이 『사상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문으로 부각되는 과정과 동궐에 놓여 있다.

정치학과 경제학이 동지의 지적 구심점에 놓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현실을 해명하고 그에 개입할 수 있는 지적 무기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 정치와 사회,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요청됨에 따라 그에 부응할 수 있는 두 학문이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이는 1955년에 들어와 『사상계』가 주간 주재의 편집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회과학은 학술적인 연구 대상으로, 철학은 교양으로, 문학과 문학연구는 문예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상황과도 연결된다.⁴¹⁾ 편집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회과

39) 정병욱, 앞의 글, 321쪽.

40) 이것은 『사상계』에서 본격적인 장르 구분이 이루어지는 1955년도에 와서의 일이다. 그 이전에 문학논문은 연구논문이나 학위논문 등으로 분류되었다.

41) 이는 사상계사가 본 궤도에 들어서서 1955년부터 1인 편집 체제(장준하 1인 편집)에서 주간 주재의 편집위원회 체제로 바뀌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브니엘』, 앞의 책, 280~289쪽 참조). 주간 체제로 들어가면서 『사상계』는 김성한이 주간과 문학을 맡고 안병욱이 교양계통으로 철학과 사상을 맡고 김준엽이 정치·경제·사회 쪽을 맡게 되고(『주간좌담: 사상계 시절을 말한다』, 위의 책, 59쪽) 그에 따라 『사상계』는 사회과학, 교양, 문화예술의 3부분으로 나뉘게 된다(박경수, 『재야의 빛 장준하』, 291쪽). 그리고 1955년 1월 『사상계』 편집위원회에서는 “1. 민족의 통일문제 2. 민주사상의 함양 3. 경제발전 4. 새로운 문화의 창조 5. 민족적 자존심의 양성”을 편집원칙으로 정하고 종합잡지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위해 매호마다 학술적인 연구논문과 각 분야에 걸친 평론을 싣고 교양란과 내외전망, 문예란을 두기로 결정하게 된다(장준하, 『브니엘』, 290~291쪽).

학 특히 정치학과 경제학이 아카데미즘의 분과학문 체계라는 경계를 넘어 한국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정치학의 영역에서는 신상초와 양호민 같은 정치학자들이 대표적인 필자로 나서서 근대 정치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한국의 정치 현실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글을 주로 서술하였다. 그런데 이 정치학자들의 작업은 대체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강하지만, 경제학자들의 작업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당시에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경제 현실에 대한 종합적, 집단적 진단 능력을 발휘하였으며,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특징에 주목하여 이들을 ‘사상계경제팀’이라 칭하기도 한다. 이 ‘사상계경제팀’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경제 원조가 한국 경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비판하면서 자립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후진국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계획 경제와 합리적 통제를 강조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이들은 경제자립 모델로 케인즈 경제학과 후진국개발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글을 썼고 이것은 주류 경제학 이론으로 대중화되었다.⁴²⁾

이처럼 1950년대 중후반에 현실 해석 능력을 지닌 사회과학이 『사상계』의 학적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었지만, 1959년도에 실린 『합본부록: 총목록』의 분류 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모든 영역의 학술적인 글은 논문이나 평론으로 소통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5년 1월호에 이르러서 『사상계』는 <학술논문>이라는 장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사실 『사상계』에 실린 글들은 1955년 1월에 와서 처음으로 장르에 따라 구별된다. 초기에는 권두언(1953.4)과 편집후기(1953.4)를 제외하

42) 정진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상계연구팀 저, 앞의 책, 308-320쪽 참조.

고는 장르(나 코너)를 명시하지 않고 글을 싣는 방식을 취했다가, 점차 <연재부록>(1954.9.), <사상계 시론>(1954.9.) 등의 명칭이 추가되었고, 1955년 1월에 와서는 <연구논문>과 <평론>이 등장하게 된다(이때 <사상계 시론>은 <내외전망>과 <시론>으로 분화된다). 같은 해 2월호에는 <수필>, <문예> 장르와 <독자통신> 코너 및 <교양> 코너가 추가되며, 그후로도 새로운 장르나 코너가 덧붙여지거나 명칭이 바뀌는 등 변화가 조금씩 이어진다. 이중 장르명의 생명이 가장 짧았던 것은 의외로 연구 논문이다. 연구논문은 1955년 7월호를 끝으로 더 이상 장르 구분을 위한 명칭으로 선택되지 않는다. 그리고 1955년 8월호에는 <평론과 교양> 코너가 신설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연구논문, 평론, 교양을 모두 통합한 형태였다. <평론과 교양>으로 분류된 글은 『관존사상의 근거와 유편』(배성룡), 『기독교의 흥기와 그 정치사상』(조효원), 『국문학연구의 현장과 장래』(김동욱) 세 편이었다. 이중 배성룡의 글이 교양에 적합하고, 나머지 두 편은 학술논문에 가깝다. 특히 조효원의 글은 목차가 매우 구체적이면서 주석을 착실하게 단 전형적인 논문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양과 평론>으로 분류되지 않은 글들에서도 논문 형식에 어울리는 요소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장르 구분은 매우 모호한 편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장르나 코너 구분에 혼란이 생긴 것은 사회과학을 중심적인 연구 영역으로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사태였다. 『사상계』는 1955년에 여러 가지 장르·코너 실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회과학을 학적 거점으로 삼게 되기 때문이다.

1955년 10월부터는 <국내경제해설>이 신설되어 경제학의 역할이 강화되며, 1955년 11월호부터는 문학연구를 <문학>의 하위에 두고 <평론과 교양>은 철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전공자들이 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문학이 인문사회과학에서 제일 먼저 분리된다. <문학>에 논문,

평론, 창작이 모두 포함됨에 따라 전광용의 『신소설연구』는 〈문학〉 코너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문학의 학술적인 성격보다는 문예적인 성격을 더 중시하고,⁴³⁾ 사회과학의 현실분석력을 강조하면서 학적 성격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이중전략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대에 문학이 교양으로 수용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자 문학에 대한 지류 교양 수준에서 확정하는 작업의 일환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두 번

43) 참고로 1950년대에 『국어국문학』에 실린 글 대부분은 국어학과 고전문학에 대한 연구 논문이었다. 현대문학 연구 논문은 조향의 『CORTI씨 器官 界외(상): 시와 청각의 주변』(『국어국문학』9, 1954.4)와 『CORTI씨 器官 界외(하): 시와 청각의 주변』(『국어국문학』10, 1954.7.), 번역글인 B. A. 윌리엄스의 『소설의 사차원』(『국어국문학』제13권, 1955.4), 정한모의 『효석과 EXOTICISM』(『국어국문학』제13권, 1955.4) 등 몇 편 되지 않는다. 최기숙에 따르면 1950년대에 『국어국문학』에 실린 현대문학 관련 논문은 총 9편이며 비율은 6%에 불과하였다(최기숙, 『1950년대 대학의 국문학 강독강좌와 학회지를 통해 본 국어국문학 고전연구 방법론의 형성과 확산』, 『한국고전연구』22, 2010, 480쪽 참조). 이것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현대문학이 본격적인 학적 연구 대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문학은 고전문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당시 문학 연구의 중심을 차지했던 고전문학은 작가론과 작품론이 위주가 되었을 뿐 주제론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박지홍·김지용의 『공개 토론 기록 I: 국문학사 시대 구분 문제』(앞의 책)가 주제론적 성격을 띤 거의 거의 유일한 논문인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사상계』에서는 『좌담회: 한국문학의 현재와 장래』(1955.2)를 개최하였고, 『소설의 본질』(1957.12) 같은 문학 이론 글들을 번역하여 실었으며, 박영희의 『현대한국문학사』(1958.4~1959.4)를 연재하는 등 현대문학 연구를 선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당대의 문예지에 실린 현대문학 연구 분야의 논문 역시 작가론 중심이었다. 가령 『현대문학』은 창간 당시부터 작가론에 주력했다(조은정, 『1950년대 '작가론'의 제도화 과정: 조연현과 『현대문학』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학회 제3차 전국학술발표대회, 2009.10, 122쪽 참조).

“일종의 아카데미즘을 문학현실에다 접목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문학의 질을 향상시키고 폭을 넓힌” 점이 『사상계』의 성과로 거론되는 것처럼(『문학좌담: 사상계 문단을 생각한다-한국문단에 새 바람 일으킨 사상계』,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앞의 책, 245쪽.) 당시 신생 학문이었던 현대 국문학의 학적 성장은 『사상계』가 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계』에서 문학연구는 학적 거점이 되지 못했다.

째로 분리되는 것은 철학이다. 철학은 교양의 영역, 사회과학은 평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인문학에서 사회과학으로의 초점 전환이 완성된다.⁴⁴⁾

3. ‘학습의 시대’와 『사상계』의 저자/독자 교육

초기 『사상계』는 학자들을 주요 독자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54년 1월호에 실린-인용자) 야스퍼스의 『니이체와 현대』 토인비의 『문명의 조우』는 근대 서양문명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 준”⁴⁵⁾나 “연재중의 『현대 소련정치와 모순과 고민』은 그 과학적인 연구방법과 치밀한 논리전개에 있어서 학계의 귀감이 될 만하”⁴⁶⁾ 편집자 장준하의 논평에서 잘 드러난다.⁴⁷⁾ 마치 학술지의 권두에서 게재 논문을 소개할 때 채택하는 서술 방식을 연상시키는 이 논평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사상계』가 학자들의 글을 신는 역할만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학적 지향을 조정해주고 학계에 연구 방법론이나

44) 이러한 분화가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철저히 구분하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사회과학대학은 1972년에 제도화되며, 그 이전에 정치학 등은 인문대학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당시에 사회과학은 인문학의 영역으로 이해되는 관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구분이 이 시기에 존재하였고 이것이 1970년대의 제도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고려해 양자를 분화시켜 논의하고자 하였다.

45) 『편집후기』, 『사상계』9, 1954. 1.

46) 『편집후기』, 『사상계』15, 1954. 10.

47) 이러한 『사상』을 『사상계』와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차이 중 하나는 서구의 논문을 학문의 전범으로 삼는 태도가 『사상』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소련 출신의 미국 사회학자 소로킨의 저서에서 한 장을 선택해 번역한 『현대문화의 비판과 그 재건』이 내용상 전문성이 강하지만, 아직은 권두언이나 편집후기 등을 통해 학적 모델로 권장하는 태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논리 전개 방법 등의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였다
는 점이다. 즉 독자적인 학술공동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못한 시기에 『사
상계』가 공론장에서 담당한 역할 중 하나는 저자를 훈련시킴으로써 아
카데미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이었다.

당시 『사상계』 기자였던 사회학자 송복의 회고에 따르면 “대학 선생
님들에게 청탁하기 위해서 미리 그 선생님의 강의를 청강하는 경우도
많았”던바⁴⁸⁾ 『사상계』는 제도 아카데미즘의 학술 동향에 민감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와 동시에 장준하는 “우리말 집필자들도 우리말 구사력이
심히 부족하다.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좋은 필자를 만들어야 하고 또한
교육을 시켜서 독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우리의 현실이 서글
픈 따름이었다. 선진외국의 잡지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고충이다. 독
자의 확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문화의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
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⁴⁹⁾ 그래서 장준하는 신태섭의 『미국경제
학자의 일본경제학계비판』과 같이 국제적인 아카데미즘 안에서 이루어
지는 학술적 성과를 직접 소개하는 논문을 신기도 했지만, 아카데미즘
의 형식과 내용을 담은 풍부한 논문 샘플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또한 사상계논문상을 제정해 학자들의 글
을 평가하고 수상함으로써 학자들의 학술 연구를 강화하려 하였다. 그
점에서 『사상계』 초기에 이루어진 학자 훈련은 곧 독자 훈련에 다름 아
니었다. 학술지의 성격이 가장 강했던 1954년도까지 『사상계』의 독자는
학자가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상계』는 1955년도에 들어와 대학생과 30대 지성인으로 중

48) 송복, 『통찰력의 문 열어준 <사상계>』,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앞의 책,
191쪽.

49) 장준하, 『브니엘』, 앞의 책, 298쪽.

심 독자를 변경한다. 이것은 독자의 폭을 확장해서 지를 대중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그리고 장준하의 판단에 의하면 『사상계』가 주도해 나가고자 한 지의 대중화는 기성 지식인에게서 기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일제의 식민지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무런 이론체계가 서 있지 못”하며,⁵⁰⁾ “일본교육으로 자”랐기 때문에 “우리말잡지를 손에 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즐겨 손에 드는 것은 일본말잡지 『문예춘추』나 『중앙공론』”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 시기에 정립된 지식 체계와 학적 관행을 해체하고 새롭게 근대 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 『사상계』가 독자를 기성세대가 아닌 “대학생과 30대 이상의 젊은 지성인으로” 확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⁵¹⁾

『사상계』에서는 학술적 글쓰기의 관행을 익혀야만 쓸 수 있는 논문을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좋은 논문이라고 판단된 경우 대학생의 글이라도 과감히 지면을 할애해 줌으로써 학술적 글쓰기를 대학생이 써야 할 글로 지정하고, 장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쓴 『현대 철학과 문학의 일단면』⁵²⁾이나 대학생이 쓴 『현대문명의 활로』⁵³⁾가 동지에 실리거나, 『윤리의 종말론적 구성』⁵⁴⁾ 같은 대학생들의 졸업 논문이나 그 초록이 실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한편

50) 장준하, 『한 시민이 읽은 30년 간의 신문』, 『장준하전집3: 민족주의자의 길』, 337쪽.

51) 장준하, 『브니엘』, 앞의 책, 297쪽. 참고로, 『사상계』의 필진에 신진 연구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52) 이교상(서울대학교대학원 문리대), 『현대 철학과 문학의 일단면』, 『사상계』14, 1954.9.

53) 한기식(고려대 정치과), 『현대문명의 활로』, 『사상계』15, 1954.10. 『사상계』에서는 “이 논문은 콜롬비아대학교 제2백주년기념논문, 한국예선에서 수위로 당선한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위의 글, 132쪽.) 참고로, 이교상의 『현대 철학과 문학의 일단면』이나 한기식의 『현대문명의 활로』 둘 다 목차, 주석, 참고문헌 등의 논문 체재를 갖추지 않았으나 내용이 연구의 성격이 강해 논문 장르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54) 한국신학교 대학생, 『졸업논문: 윤리의 종말론적 구성』, 『사상계』22, 1955.5.

으로는 「서평」란을 통해 학생들이 발간한 학보를 교수가 직접 평가하는 등⁵⁵⁾ 『사상계』를 통해 학생들이 써야 할 논문의 방향과 방식 즉 지의 유통 방식에 대해 조언해 줌으로써 학술적 관행을 익히도록 추동하고 있다.

독자를 청년학생으로 확정하여 글을 편집하기 시작한 1955년 6월호부터는 이러한 성격이 더욱 강화된다. 가령 『사상계』 1955년 6월호에서는 〈학생에게 보내는 특집〉을 마련하여 정치학, 언어학 등의 여러 학문을 소개하고 학문의 방법론과 경향뿐만 아니라, 학문을 전공할 때 알아 두어야 할 여러 가지 상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학생 독자들을 수련시키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었다. 1956년에 들어서는 국가, 민족, 계급, 정당 등과 같은 근대 학문에서 통용되는 개념들을 익히는 데 적합한 글들을 『사상계』에 대거 실음으로써 학생 독자들을 지적으로 훈련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⁵⁶⁾ 이것은 근대적 지의 영역, 주제, 탐구 방식, 지식의 생산과 소비 방식을 학생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훈련하는 일에 다른 아니다.

이처럼 1955년도에 대학생 독자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그에 알맞은 지적 내용이 선별되어 동지에 게재됨에 따라, 아카데미즘 안에서 『사상계』를 읽은 학생들의 연구 모임이 속속 생겨난다.⁵⁷⁾ “서울대학교 학

55) 전택부, 「서평」, 『사상계』 14, 1954.9.

가령 전택부가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들이 주최가 되어 발간한 「문리대학보」에 대한 서평을 쓸 때,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상찬하면서도 “뜻 모를 한자와 외국어를 너무 써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문이 자꾸 귀족적으로 특권계급적으로 흘러 간다면 중당은 학문이 생활과 동떨어져서 일반에게는 소용없는 것이될까 저허 하는 바이다.”와 같이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등 바람직한 학술 행위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56) 글 제목도 「국가」, 「민족」, 「계급」, 「정당」이라는 점에서 개념 정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 짐작된다.

57) 1956년도 1월호 『사상계』의 독자통신란에는 『사상계』로 강서회를 하고 있다는 대학

생입니다, 동지들과 더불어 사상계를 텍스트로 독서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 “귀지의 발전은 우리들 젊은 지식인의 희망”이며 이미 사상계를 중심으로 하는 동지(同志) 6명이 생겼습니다”와⁵⁸⁾ 같은 독자투고를 통해서 볼 때 『사상계』는 제도 아카데미즘을 대신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떠맡았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4. ‘학술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의 형성과 분화

『사상계』가 독자의 폭을 넓히게 됨에 따라 점차 학술지의 성격보다는 교양지, 시사정론지의 성격이 더 강화되며, 이것은 학술지의 성격을 약화시켜 달리는 대중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를 ‘학술적인 것’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형성되고 분화되는 방식과 관련시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사상계』는 논문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 지식인을 주요 독자로 상정하였으며, 이것은 1953년에서 1954년 사이에 『사상계』 독자들에게 “① 정치·경제·사회·종교·역사·문예 각방면의 학술적 연구 논문 ② 문예작품 일반 ③ 번역 논문 급 문예물”을 투고해줄 것을 알리는 『사고(社告)』가 자주 게재된 데서도 확인된다.⁵⁹⁾ 또한 “이 달부터 『갑오경장의 사상적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이 논문은 “갑오년을 전후하여 일어난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개혁사실을 연구”⁶⁰⁾한 것이라는 내용처럼, 이 시기에는 『편집후기』를 통해

생들의 독자후기가 올라와 있다. 이러한 후기는 종종 발견되는 것이기도 하다.

58) 학생, 『독자통신』, 『사상계』30, 1956.1, 12쪽.

59) 『사고』, 『사상계』4, 1953.7, 246쪽.

60) 『편집후기』, 『사상계』16, 1954.11.

『사상계』에서는 어떤 논문을 어떤 목적에서 실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태도는 『사상계』의 『독자통신』란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데 장준하의 회고에 따르면⁶¹⁾ 1954년 12월호에 『독자통신』을 신설했는데 독자들의 편지가 오지 않아 처음 몇 달 동안은 본인이 쓴 독자투고문을 잡지에 올렸다고 한다. 그 점에서 초기에 실린 독자투고는 장준하가 생각하는 『사상계』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1954년 12월호의 『독자통신』란에 실린 “우리 지식인층에는 유일무이한 좋은 잡지로 믿습니다. 이 나라 학술, 문화, 사상계에 많은 공헌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내용에는 『사상계』를 학술지에 위치 짓는 방식과 전문적인 지식인을 독자로 설정하는 방식이 엿보인다.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 『사상계』에 실린 글을 보면 정치, 경제, 철학, 종교 등에만 액센트를 넣어서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잡지가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시와 소설에도 기회를 제공하여 훈훈한 빛과 향기가 풍기는 잡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실어 문학작품을 통해 교양을 강화하고자 하는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 즉 이는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을 지양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을 실어 간접적으로 이러한 성격을 완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학생들 역시 “우리들은 제2차대전 이후 구미제국의 사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통 알지 못하고 있”으니 “학교 강의에서도 충족시킬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요청을 귀지에서 충족시켜” 달라는⁶²⁾ 글을

61) 장준하, 『브니엘』, 앞의 책 참조.

62) 서울대학교 학생, 『독자통신』, 『사상계』, 1955. 2월호, 7쪽. 이 시기에는 “귀지는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는 유일무일의 양서입니다. 어느 학과를 전공으로 하거나 귀지는 모든 학생들이 즐겨 읽고 진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래의 전통에서 벗어나 문학 방면으로 흐르지 않기를 천만부탁합니다.”와 같이 문학란

보냄으로써 『사상계』를 통해 학문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낸다.

또한 1955년도에는 『사상계』의 독자가 청년학생과 30대 지식인으로 전환 혹은 확장되었지만 “유일한 우리나라의 학술지요 지식인의 진실한 젊은 친구”인 동지에 “독자 대 국내 지식인에게 여러 가지 학술적인 질문”을 하는 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나, 『사상계』는 “국가민족에 봉사하는 분들의 지상(誌上) 연구실”이라는 평가, “종교 문화 정치 사회 경제 각 방면의 건전한 논문을 더 많이 실어”달라는 요구가이 쇄도하는 등 『사상계』를 학술지로 인식하는 태도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우세를 점하고 있다.⁶³⁾ 그러면서도 “각 학회의 전문서적이 속속 나오는 모양 같으니 앞으로는 학술에 관한 전문적인 논문보다도 문화 전반에 걸친 비평”이 중심이 되는 “문화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는⁶⁴⁾ 독자투고도 등장하기 시작해 학술적인 것은 아카데미즘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식인 대중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단초를 이 시기부터 발견할 수 있다. 게다가 “귀지연재교양란에 난해한 점이 많다. 학교생활 10년뿐인 저는 어떤 데는 좀더 자세한 주해를 붙여주었으면” 한다는⁶⁵⁾ 글이 투고되는 등 『사상계』의 전문적, 학술적 성격에 불만을 표시하는 일반인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사상계』 독자투고의 성격이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1958년에 들어와서이다.⁶⁶⁾ “외국에서 간행되는 학술잡지를 구해 볼 길이 막연한 우

을 강화하기 시작한 『사상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학생들의 독자투고도 등장한다(학생, 『독자통신』, 『사상계』26, 1955.9).

63) 학생 등, 『독자통신』, 『사상계』27, 1955.10, 12~13쪽

64) 『독자통신』, 『사상계』22, 1955.5.

65) 일반인, 『독자통신』, 『사상계』34, 1956.5, 308쪽.

66) 『편집후기』에서 학술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는 태도가 눈에 띄게 사라지는 것도 이 시기이다.

리 형편으로는 귀지에 번역되는 참신한 논문들이 여간 요긴한 것이 아니며⁶⁷⁾ “귀지는 유일무이한 한국지식인의 학술지”라고⁶⁸⁾ 평하는 글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상계』가 유일한 신지식의 원천”⁶⁹⁾이라는 반응이 더 이상 독자투고의 중심을 차지하지는 못하게 된 것이다. 즉 “사상계는 술잔 아니면 독을 든 이들 청년에게 무엇을 말하렵니까. 거창하고 화려한 철학·경제·법률·문학이론은 배부른 유한식자들의 생리적 배설이요 군소리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와 같이 『사상계』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비판이 노골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필진이 학자 중심인 점을 비판하면서 “사상계의 문호를 독자들에게도 널리 개방”하여 문학만이 아니라 “평론 기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독자들의 투고를 취급했으면”한다는 내용의 글이 실리는가 하면,⁷⁰⁾ “귀지 구독자의 대부분이 농촌청년”이라고 주장하면서 “현한국 농촌이 당면한 과업”을 다루어 달라고 요청하거나,⁷¹⁾ “귀지 독자가 최고 지식층이기는 하지만 칼·빨트의 『성서영감론』, 『영시개설』, 『압력단체의 이해』 등은 너무 전문적이라고 생각”한다는⁷²⁾ 비판까지 이 시기에 과감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사상계』 1959년도 11월호에는 “귀지가 학술지의 성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딱”하다며, “대중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학문하는 이의 손에만 있어야 옳겠는지” 묻고는 “무지의 사회와 대중을 신랄하게

67) 「독자에게서 온 편지」, 『사상계』66, 1959.1, 264쪽.(1959년도 1월호부터 「독자통신」은 「독자에게서 온 편지」로 바뀌었다가 1959년도 6월호부터 「편집실앞」으로 바뀐다.)

68) 일반인, 「편집실앞」, 『사상계』81, 1960.4, 308쪽.

69) 교사, 「독자통신」, 『사상계』19, 1955.2, 7쪽.

70) 「독자에게서 온 편지」, 『사상계』67, 1959.2, 194쪽.

71) 「편집실앞」, 『사상계』71, 1959.6, 19쪽.

72) 「편집실앞」, 『사상계』74, 1959.9, 14쪽. 이에 대해 『사상계』에서는 “각 전문분야마다 훌륭한 잡지가 나올 때까지는 사계(斯界)에 도움되는 글이라면 전문적인 논문도 게재하는 것이 본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실는다.(같은 쪽.)

비판하고 민주주의적 참된 지성인으로 바꿀 현실적인 글을 게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강경한 글까지 등장한다.⁷³⁾ “일부 학자나 전문분야의 학도가 아니면 이해가 어렵다거나⁷⁴⁾ “생활과 경제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서정적인 면이 궁핍되어 있”으니 “전문가나, 그 방면에 다분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훌륭한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정서를 시민생활에 부여” 달라는 지적이 빈번해지는 것은,⁷⁵⁾ 독자 대중이 더 이상 『사상계』의 학술적 성격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지 않거나,⁷⁶⁾ 적어도 초기와 같이 『사상계』의 인도를 따라 학문을 연마하겠다는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⁷⁷⁾

요컨대 이것은 『사상계』의 초기 역할과는 다른 역할이 독자 대중들에 의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사상계』는 세대와 성별의 분할을 통해 청년학생들과 30대 지성인들을 독자 대중으로 호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상계』에서 제공하는 근대 지가 전문적, 학술적인 지가 아

73) 『편집실앞』, 『사상계』7677, 1959. 11, 14쪽.

74) 『편집실앞』, 『사상계』77, 1959. 12, 17쪽.

75) 학생, 『편집실앞』, 『사상계』78, 1960. 1, 14쪽.

76) “지식인의 고귀성은 자기만 지식을 고집할 뿐 아니라 이를 할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어렵게 쓰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딱한 일이고 때로이 학술용어를 풀이해 주어 무식한 소생들도 지식인의 대오에 끼어봅시다.”에서처럼 일반인이 『사상계』의 독자로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이다(일반인, 『편집실앞』, 『사상계』79, 1960. 2, 17쪽). 한편으로 “민족적 해방을 얻은 지 이미 15년, 민족적 비극, 6·25동란을 경험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는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사상이 움터나올 때도 되지 안했는가.”라고 『사상계』의 편집 경향을 비판하는 태도 역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된다(『편집실앞』, 『사상계』81, 1960. 4, 15쪽).

77) 또한 자신을 일반 독자로서 상정하지 않더라도 『사상계』를 학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태도가 등장하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가령 『사상계』, 1960. 2월호에는 “귀지의 특집이 나올 때마다 독자로서 고소를 금치 못할 때가 많다”고 적으면서 “소개나 기껏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에 불과할 때 많”으나 “이미 우리는 현대에 사는 이상 문제되는 바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방향으로 붓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편집실앞』, 14쪽).

닌 ‘대중 지’로 전환되기를 요청 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상계』에서 구축하고자 한 근대 지의 성격에 균열을 내는 독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으며, 근대국가의 정립과 운영에 적합한 지를 창출하고자 한 『사상계』 내부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적 출구가 마련되기도 어려웠다. 그 점에서 ‘재야의 교과서’로 불린 『창작과비평』이⁷⁸⁾ 등장할 때 『사상계』를 지적으로 계승한다는 태도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사상계』가 제도 아카데미즘을 위한 교과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일 터이다.

78) 김인환, 『언어학과 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김현주, 앞의 글, 446쪽 재인용).

참고문헌

1. 1차 자료

『경향신문』, 『국어국문학』, 『동아일보』, 『사상』, 『사상계』, 『역사학보』, 『진단학보』, 『철학』

2. 2차 자료

권보드레,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아세아연구』54(2), 2011, 248쪽.

김건우, 『한국문학의 제도적 자율성의 형성: 대학제도를 중심으로』, 『동방학지』149, 2010. 3.

김동춘, 『4·19혁명과 사회과학』, 『실천문학』97, 2010, 335쪽.

김현주, 『『창작과비평』의 근대사담론: 후발자본주의 사회의 역사적 사회과학』, 『상허학보』36, 2012. 10, 446쪽.

문교40년사편집위원회 편, 『문교40년사』, 문교부, 1988.

박지영, 『번역된 냉전, 그리고 혁명: 사르트르, 마르크시즘, 실존과 혁명』, 사상계연구팀 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서은주, 『1950년대 대학과 ‘교양’ 독자』, 『현대문학의 연구』40, 2010, 10쪽.

장준하, 장준하선생 1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장준하전집3: 민족주의자의 길』, 세계사, 1992.

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민족혼·민주혼·자유혼: 장준하의 생애와 사상』, 나남출판, 1995.

정진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경계팀’의 개발 담론』, 사상계연구팀 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012.

조은정, 『1950년대 ‘작가론’의 제도화 과정: 조연현과 『현대문학』 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제3차 전국학술발표대회, 2009.10, 122쪽.

최기숙, 『1950년대 대학생의 인문적 소양과 교양 ‘지’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42, 2010, 148쪽.

_____, 『1950년대 대학의 국문학 강독강좌와 학회지를 통해 본 국어국문학 고전연구 방법론의 형성과 확산』, 『한국고전연구』22, 2010, 480쪽.

한기형, 『근대매체와 식민지 민간학술사회의 형성: 근대문학의 지식사적 위상에 대한 시론』,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09.

허은,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USIS)’의 역할과 문화전파 지향』, 『한국사학보』15, 2003.

황필홍·이병수, 『50년대까지 영미철학의 수용과 용어의 번역』, 『시대와철학』14(2), 2003, 162쪽.

228 대중서사연구 제28호

후지이 다케시, 『반공과 냉전 사이: 『사상』과 『사상계』의 반공주의와 진영론』,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지: 냉전과 혁명, 그 사회역사적 분절과 이행의 논리들』, 2011. 4. 22.

〈부록1〉 : 『사상』 필자 분석을 위한 자료

| 호 | 장르 구분 | 필자 이름 (소속 및 직위) | 전공 및 학력 | 글 제목 |
|--------------------------|------------------|------------------------|--|-----------------------|
| 창간호 (1952.9.) | 논문 | 이병도 (서울문리대교수) | - 사학 - 일본 와세다대학(문학부 사 학급사회학과(史學及社會 學科) 졸업 | 신라의 협동정신과 통일의 지도이념 |
| | 논문 | 김기석 (서울사대학장) | - 철학 - 와세다대학·도호쿠대학(東 北大學) 철학과 졸업 | 역사와 철학 |
| | 논문 | 김재준 (한국신학대학교수) | - 신학 - 일본 아오야마학원(青山學 院) 신학부 졸업 - 미국 프린스턴신학교 거쳐 웨스턴신학교에서 구약학으 로 신학석사 학위 취득 | 종교와 철학 |
| | 논문 | 김상기 (서울문리대 학장) | - 사학 - 일본 와세다대학 사학과(동 양사 전공) 졸업 | 동양사상에 나타난 「천」의 의미 |
| | 논문 | 배성룡 | - 경제학 - 일본 니혼(日本)대학 전문부 사회과 졸업 | 한민족의 경제관 |
| | 논문 | 김석목 (서울사대교수) | - 윤리학 - 일본 立教(立教)대학 철학부 졸업 | 주체성과 전환기의 윤리사상 |
| | 논문 | 엄요섭 (서울사대·연대교 수) | - 신학, 사회학 - 일본 관서학원대학 신학부 졸 - 캐나다 토론토대학에서 석 사학위 취득 | 결혼과 혼례에 관한 연구 |
| | 논문 | 조향 (동아대학교수·시 인) | - 일본 니혼대학 예술학원에 서 수학 | 20세기 문예사조 |
| | 평론 | 김병기 (화가) | - 일본 도쿄문화학원 미술부 수학 | 현대미술의 형성과 동향 |
| | 평론 | 에니드·스타키 | | 앙드레·지드 : 그가 본 공산주의 |
| 제1권 제2호 (1952.10.) | 논문 | 이병도 | 상동 | 우리의 일시 민주제와 그 변천 |
| | 논문 | 김두현 (전북대학교총장) | - 윤리학 - 일본 동경제국대학 문학부 윤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에 서 문학박사학위 취득 | 가족과 윤리 |
| | 논문 | 김기석 | 상동 | 실천철학서론 |
| | 논문 | 배성룡 | 상동 | 유훈과 경제 |
| | 논문 | 이선근 (서울대학교교수) | - 사학 - 일본 와세다대학 졸업 | 독립정신과 사대사상 |
| 논문 | 박상현 (서울대학교교수) | - 철학(실존철학) | 실존과 철학 | |

| | | | | |
|--------------------------|----------------|--|---|---|
| | 논문 | 조항 | 상동 | 20세기의 문예사조 |
| | 평론 | 아서·쾌슬러 | | 내가 본 공산주의 |
| | 문학 | 알베에르·까뮤 | | 연재장편: 페스트 |
| | 좌담회 | 백낙준, 이병도, 김기석, 배성룡, 박현숙, 이교승 참석 사회: 장준하 | | 사상운동의 회고와 전망 |
| 제1권 제3호 (1952.11.) | 평론 | 백낙준 (전문교부장관) | - 미국 파크대학·프린스턴대학에서 역사학·신학 공부 - 예일대학 대학원에서 <조선신교사>로 철학박사학위 취득 | 민주주의는 왜 공식적이 아닌가 |
| | 논문 | 김기석 (서울사대학장) | 상동 | 한민족의 문화적 책임 |
| | 논문 | 김재준 (한신대학학장) | 상동 | 그리스도교와 세속주의 |
| | 논문 | 배성룡 (경제학자) | 상동 | 동양적 정치사상과 그 양식연구 |
| | 서사시 | 설의식 (시인) | | 서사시 이순산: 백의종군의 길 |
| | 논문 | 신도성 (서울대학교교수) | - 정치학 - 일본 도쿄제국대학 정치학과 졸업 | 회담 도시국가의 민주정치 |
| | 논문 | 정대위 (한국신학대학교수) | - 신학 - 일본 도시사대학(同志社大學) 문학부 신학과 졸업 -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 취득 | 기술·도덕·신앙: 아이놀드·토인비의 사론과 그 동시대적인 Context |
| | 논문 | 엄요섭 (서울사대·연대사회학강사) | 상동 | 사회학적으로 본 유물사관 |
| | 논문 | 김득황 (보건부총무과장) | - 사상사 - 일본 니혼대학 졸업 | 고유 도덕사상의 기본성격 |
| | | 박익수 (해군사관학교 교관) | - 과학사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 현대자연과학의 근본사상에 대한 철학적 고찰 |
| | | 편집실 | | 국제연합의 조직과 사업 |
| | | 편집실 | | 신간소개: 최신 미국명저 |
| | | R·M·알베레에스 | | 배반당한 절망 |
| | 알베에르·까뮤 | | 연재장편: 페스트 | |
| 제1권 제4호 (1952.12.) | 평론 | 김기석 | 상동 | 신세대의 도덕 |
| | 논문 | 배성룡 | 상동 | 동양정치사상과 그 양식연구 |
| | 논문 | 이태영 (변호사) | - 서울대학교 법대 | 사상적으로 본 역사적 현실 |
| | 논문 | 황산덕 (서울법대교수) | - 법철학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졸업 | 힘과 법과 허무·실존 |
| | | P·A·쏘로킨 | - 사회학(미국) | 현대문화의 비판과 그 재건 (서남동 역) |
| | 논문 | 최문환 (서울문리대교수) | - 경제학 - 와세다대학 경제학과 졸업 | 루우소의 민족사회관 |
| | 이건호 (고려대교수) | - 형법학 - 중앙대 법과대학 졸업,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 법에 의한 평화사상: 켈젠의 소설(所說)에 관하여 | |

| | | | |
|----|--------------------------|----------------------------------|--|
| | | 취득 | |
| | 박익수 | 상동 | 실존의식의반상: 현대 물리학이 본 세계상 |
| | 유창돈 | - 국어학 - 일본 주오(中央)대학 법학부 수학 | 상고문학에 나타난 무가사상 |
| | 정대위 | 상동 | 기술·도덕·신앙 아이돌 드·토인비의 사론과 그 동시 대적인 Context |
| 논문 | 강원길 (변호사·국무총리 사무관) | 미확인 | 기독교적 사회관: 캐톨릭적 입장에서 |
| | 설의식 | 상동 | 서사사: 백의종군의 길 |
| | 조향 | 상동 | 20세기문예사조 |
| | 편집실 | | 신간소개: 최신 미국명저 |
| | 루이스·핏서 | | 스타린의 생과 사 |

〈부록2〉 : 『사상계』 필자 분석을 위한 자료

| 호 | 장르 구분 | 필자 이름 (소속 및 직위) | 전공 및 학력 | 글 제목 |
|---|----------|--------------------------|--|--|
| | 권두언 | 장준하 | | 인간과 인격 |
| | 특집 논문 | 김계숙 (서울대사대교수) | - 철학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 학과 졸업/일본 동경제국 대학 대학원 철학과 중퇴 | 특집: 인간과 문화 |
| | 논문 | 김재준 | 상동 | 특집: 인간생활과 종교 |
| | 논문 | 배성룡 | 상동 | 특집: 동양인의 인생관 |
| | 논문 | 지동식 | - 신학 - 일본 니혼신학교 졸 | 특집: 인간에 대한 소고: 기독교적 입장에서 |
| | 논문 | 임한영 | - 교육학 - 일본간사이카쿠인(關西學 院)대학 영문학과 졸 | 특집: 인간과 교육 |
| | 논문 | 권상로 (동국대학교총장·종교 인) | | 특집: 불교의 인생관 |
| | 논문 | 김기석 | 상동 | 특집: 칸트의 인생관 |
| | 논문 | P. A. 쏘로킨 | | 특집: 인간 변질론(서남동 역) |
| | 논문 | 리스톤 포푸 | | 특집: 인간과 20세기: 인간의 문제는 인간자신이다 (김재하 역) |
| | 평론 | 백낙준 | 상동 | 삼일정신론: 우리 독립선언서 의 4대기본자유에 대하여 |
| | 논문 | 드니 드 루주몽 | | 자유와 내성(양호민 역) |
| | 논문 | 이은상 | - 사학 - 연희전문학교 문과에서 수업 - 외세대학교 사학부에서 청강 | 장관론 |
| | 논문 | 김성식 (고려대학교교수) | - 서양사 일본 센다이시(仙台市) 도호 쿠학원(東北學院) 졸 - 일본 구주대학(九州大學) 법문학부에서 서양근대사 | 병든 민족주의 |

232 대중서사연구 제28호

| | | | | |
|----------|--------------|--|----|---------------------|
| | | | 전공 | |
| 논문 | 루이스 피셔 | | | 스탈린과 그의 측근자들(이시호 역) |
| 창작 | 김광주 (소설가) | | | 불효지사: 어떤 남편이 쓰는 |
| 편집 후기 | | | | |

Abstract

Sasanggye, Academism and the Formation method
of Popular recognition about 'Academy'
- focused on 1953~1960

Kim, Mi-Ran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his paper is to consider the relation of a modern state and modern academy, especially *Sasanggye* and academism. To do this work, I tried to make it clear that *Sasanggye* designated litterae humaniores to achieve the goal of idea formulation at first, but gradually its focus moved to social science because of the response to the request of the times. And I investigated that *Sasanggye* had intensively refined academism to settle down the academic writing tradition as its subordinated subject. It means *Sasanggye* took the role of a learned journal.

At that time, as South Korea was a newly emerging nation, intellectuals tried to have new knowledges for nation-building. And the academic community and knowledge production systems had not constructed yet, *Sasanggye* took the charge of that role. So learned journals which were published by the learned societies and *Sasanggye* were not distinguished easily in the 1950s.

But *Sasanggye* had a exclusive possession in classifying knowledges with particular methods. In other words it adopted a particular branch of learning as a foothold and attempt to hierarchize the academy. And through the process of its arranging learning, economics and historical science were embossed as the important knowledges in *Sasanggye*. The reason why they took the important role was to have power to explain the actualities concretely.

However, *Sasanggye* is also noticeable in the respect of training the scholars by presenting abundant paper samples. And in the primary stage of *Sasanggye*, this scholar training was none other than reader training. Until 1954 its readers were scholars mostly. But in 1955 *Sasanggye* changed the main reader with university students and thirties intellectuals. This was for popularization of the academic knowledge. For This purpose, *Sasanggye* invited the public to join in the prize

contest for the papers on university students which they could participate in after learning how to write academic papers. And *Sasanggye* boldly devoted space to the papers written by university students if they were remarkable.

But as *Sasanggye* extended the range of the reader, the characteristic of a popular culture magazine for the well-educated classes was strengthen gradually. Undoubtedly it had relations with the continuously demand by the reader.

(Key words : *Sasanggye*, academism, academy, learned journal, litterae humaniores, social science, hierarchizing of academy, culture, writer, reader)

투고일 : 2012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2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2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0일 게재확정